

연중 28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천용욱 신부

시작예식 · 말씀의 전례

입 당 성 가	성 가	258장
죄 의 고 백	기도서	244쪽
기 원 송 가	기도서	245쪽
1 독 서	말 은 이	
2 독 서	말 은 이	
성 시	다 함 께	
복 음	말 은 이	
설 교	사 제 구 군 하	
사 도 신 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 파송예식

봉 헌 성 가	성 가	483장
성 찬 기 도	제2양식
성 체 성 가	기도서	260쪽
축 복 기 도	오르간 연주	
파 송 성 가	집 전 사 제	
		성 가	493장

< 감사성찬례 및 주일봉사자 >

구 분	이전 주일(연중28주일 10월10일) [온라인]		다음 주일(연중29주일 10월17일) [온라인]	
	11시[유튜브]	1시[zoom]	11시[유튜브]	1시[zoom]
집 전	천용욱신부	어린이예배	구군하신부	어린이예배
설 교	구군하신부	구군하신부	천용욱신부	천용욱신부
독 서	김종희		차기성	
	변금숙	온라인 분반	조진성	온라인 분반
교회와세상을 위한 기도	이성식	천 유우	한재업	홍서아
십 자 가	-	-	-	-
청 소	사목단 10월9일		사목단 10월16일	

< 다음 주일 10월 17일 연중29주일 >

독서/복음	요기 38:1-7 / 히브 5:1-10 / 시편 91:9-14 / 마르 10:35-45		
설 교	섬기는 사람		
성 가	입당 254장	봉헌 430장	영성체 오르간연주 파송 465장

다음주일 암송구절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르 10:43)

시편 22편

-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려십니까?
|| 살려달라 울부짖지만 들리지도 않습나-이까
- 나의 하느님,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 그러나 당신은 옥좌에 앉으신 거룩하신분
||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이십니다
- 우리 선조들은 당신을 믿었고
|| 믿었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니다
- 당신께 부르짖어 죽음을 면하고
|| 당신을 믿고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니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의 향

- + 교회를 위하여
○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 아프고 약한 이웃을 돌보도록
○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살도록
○ 배우고 익힘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 + 가정을 위하여
○ 모든 가정이 나자매 성가정을 본받도록
-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 남북한의 평화를 위하여
○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 환 자
○ 한부 손정자 박길자 강보경 권영달 김경옥
○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준성 신화숙
○ 신정자 고 금 유호애
- + 임산부 강서민
- + 군복무 전필중 김건우 이준형 송준석 양승환 김예찬
- + 유 학 이재성(독일)
- + 장기술장 박지혁 김슬기 이재동 윤상기 한지원(미국)
○ 서한열(캐나다)

교 회 소 식

<주일 감사성찬례 참여를 위한 지침>

- *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모든 전례와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 거리두기 4단계-비대면 전례 안내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우리 영등포교회는 공동체 전례를 비대면으로 거행합니다. 이에 10월 17일(연중29주일)까지 주일감사성찬례는 11시[유튜브 실시간] 비대면으로 봉헌합니다[9시 성찬례 없음]. 또한 오후 1시에는 **종으로 교회학교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분반공부를 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각 가정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개인위생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65 성서통독운동’

[365 성서통독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매일 전달되는 문자와 카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침기도 안내

거리두기 상황으로 오전5시50분 아침기도는 비대면이며 사목단만 참여하여 드립니다. 기도 후 ‘오늘의 말씀’, ‘새길 말씀’, ‘묵상 길잡이’와 ‘기도 의향’을 문자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 덴탈 마스크 판매

덴탈마스크 4박스(200개)를 1만원에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교우님들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교구 어머니연합회 정기총회

일시 2021년 10월 12일(화) 오전11시
장소 서울주교좌성당
각 교회 대표(어머니회 회장) 1명씩 참석하여 진행

◆ 10월 아이오나 순례길 걷기 안내

일시 2021년 10월 15일(금) 오후3시 / 10월 23일 오전10시
집결장소 강화음교회 회비 1만원
참가인원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기준 선착순 10명
문의 이진식 솔로몬 사제(010-5318-1009)

◆ 성직자원 운영위원회

일시 10월 12일 오후2시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강남교구 성직자 월례회의

일시 10월 13일 오전10시30분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강남교구 교구위원회

일시 10월 17일(다음주) 오후3시 / 비대면 온라인 회의
대상 교구 대의원

◆ 강화 속노란 고무야 판매

강화교구 초지교회는 선교비 마련을 위해 교우들과 함께 키운 고무야를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10kg 3만원 / 5kg 2만원 / 택배비 2천원
-문의 전민호 신부 010-8650-4450

▶ 활동단체 소식

+ 어머니회 물품 판매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참기름 1병 1만원 -들기름 1병 1만1천원
-엿기름 600g 4천원 -강화새우젓 2Kg 2만2천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득환(11월) 삼수연(12월) 윤용강 한윤락 신하준(13월)
박영래 양성호(14월) 김아현(15월)



함께 읽는 365 성서통독

2020년 11월 29일(대림1주일) 부터
2021년 11월 21일(왕이신 그리스도주일)까지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곧 나으리이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함께 읽고, 함께 익히고, 함께 살아가기



함께 읽는 365 성서통독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곧 나으리이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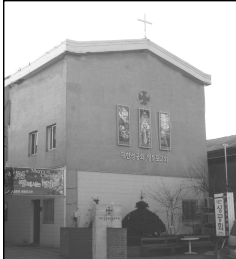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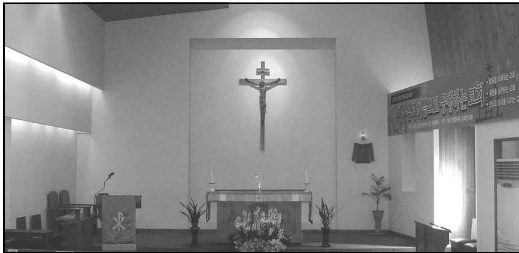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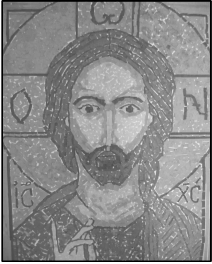
함께 읽고, 함께 익히고, 함께 살아가기

2020. 11. 29.(대림1주일) - 2021. 11. 21.(왕이신 그리스도주일)

구 분	참 석	봉 헌	금 액	월정실일조	고아랑 고흥 박해웅 서세룡 송미경 송미정 신명식 신환중 우영현 윤범기 이성식 이순경 이용해 이정주 이충운 전병도 차기성 최효운
감사성찬례		월정실일조	2,015,000		
주일	17	주정현금	280,000		
아침기도	12	교회학교	2,000		
		감사헌금	230,000		
		주일헌금	-		
		성소계발	-		
합 계	29	합 계	2,527,000		

<기간 9.26(20시)-10.3(17시)>

<헌금기간 9.26(20시)-10.3(17시)>



성공회

영등포교회

성공회(聖公會 Holy catholic church)는 하나이요, 거룩하고(聖), 보편되며(公), 사도로부터 이어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會)입니다. 성공회는 믿음의 기초를 성서에 두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으며,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선교로 1890년에 설립한 대한성공회는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의 신자는 164개 국가에 약 1억 명입니다.

성공회 영등포교회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강남교무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1966년 노동자를 위한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역교회로서 그 사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성공회의 선교정신은

- 첫째,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둘째, 새 신자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양육합니다.
- 셋째,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 넷째,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다섯째, 창조질서를 보존하며, 지구생명의 회복과 유지에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래의 다섯 가지를 지향합니다.

-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 아프고 약한 이웃을 내 몸처럼 보살피고 돌보는 교회
- 성령의 도움으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일 및 주간 모임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주일 및 주간의 모든 전례와 모임은 없습니다.

* 10월 10일(오늘)은 11시 감사성찬례를 실시간 유튜브로 봉헌합니다.

* 11시 감사성찬례는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채널

<QR코드>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크리스토퍼

2021 교구표어 “친교의 신앙으로 선교하는 제자공동체”

교회표어 “하느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은사공동체”

‘영원한 생명’

오늘 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던 부자청년은 자신이 출애굽기에 언급되어 있는 십계명 중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충실히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은 대견하게 바라보십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계명을 잘 지켰기에 이만하면 하느님께서 선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 청년이 기대하지 못했던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당성만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의로움을 위한 계명의 준수로는 온전히 계명을 준수했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 이웃들도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실망하여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사람들 중에는 계명을 잘 지키는 하느님 사랑만으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하느님을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느님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대표로 나 선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베드로는 자신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결단과 선택, 그에 따른 보상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은 자기 중심이라는 견고한 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또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걸으시며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독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한 오늘 복음은 부자가 부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도구가 눈앞에 보이는 재물이기에,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부와 재화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데에 쓰이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계명의 준수를 넘어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의 뜻을 찾는 이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이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느님의 은총의 옥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히브4:16)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내릴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

서울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관할사제 천용욱 010-4123-7357 보좌사제 구균하 010-3460-7382 신자회장 김중희 010-5472-0529 사제회장 차기성 010-4339-5233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욱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원로위원 서세룡 유호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용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교회위원 구경애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간성 추경민 한재업 성가대 지희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전 화 2671-6290 2633-8877(팩스경유) 홈페이지 www.stchristopher.or.kr e-mail ydp@anglican.kr
--	--	---